

미 증시, 사흘 연속 상승해 S&P 500·나스닥 사상최고 기록

등록 2020.02.06 06:48:12



[뉴욕=AP/뉴스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 증시는 5일(현지시간)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기록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밝은 경제지표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눌러 이날 뉴욕 증시의 상승을 불렀다. 건강보험 관련주와 금융 관련 주식들이 이날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채권 금리는 올라가 채권 가격은 떨어졌으며 국제 유가도 상승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483.22포인트(1.65%)나 오른 2만9290.85로 거래를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3334.69로 37.10포인트(1.13%) 상승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나스닥 지수 역시 40.71포인트(0.43%) 뚫 9508.68로 장을 마쳐 상승 폭은 크지 않았지만 역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중소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나타내는 러셀 2000 지수는 1681.92로 1.52% (25.15포인트) 올라 1681.92로 거래를 마쳤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dbtpwl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